

# [패턴종합국어]

## 문학, 독서편

### Orbi Class

■ 국신T 신한중 선생님



[국신T 패턴국어] 패턴, 개념, 멘토링, Q&A

- ▶ 現 Orbi Class 수능국어 인강
- ▶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 국어과 대표강사
- ▶ 現 목동아레테언어논술학원
- ▶ 前 노량진 이투스 수능 국어 단과 강사
- ▶ 前 외교, 자사고 특강 강사
- ▶ 前 Uway중앙교육 수능 언어영역 객원 분석위원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 [1강] 현대시 패턴분석 (샘플)

## II. 현대시 패턴분석

### 1. 시 읽기 패턴

#### 1) 시 읽기 패턴 매뉴얼

첫째, 제목과 작가를 본다.  
 둘째, 시적 화자/청자를 찾는다.  
 셋째, 주된 시적 대상을 찾는다.  
 넷째, 시적 화자가 놓여 있는 시적 상황을 찾는다.  
 다섯째, 그 시적 상황에 놓인, 또는 시적 대상에 대해 시적 화자가 느낄만한 정서(태도)를 상상한다.  
 여섯째, 상황과 정서를 고려하여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주제'가 보인다.*

일곱째, 구조적 특징과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본다.

#### 2) 직접 연습해보자.

<p>집에 보낼 편지에 괴로움 말하려 해도      흰 머리의 아버이 근심하실까 저어하여,      그늘진 산, 쌓인 눈이 깊이가 천 장인데      금년 겨울은 봄처럼 따뜻하다 말하네.</p> <p>먼 변방 산은 길고 길은 험하니      서울에 닿을 제면 한 해도 늦었겠지.      봄날 올린 편지에 가을 날짜 적은 뜻은      근래 부친 편지로 여기시라 함일세.</p> <p style="text-align: right;">- 이안눌 '기가서'</p> <p>V. 시적화자가 처한 상황 : 고향을 떠나 있음</p> <p>V. 시적화자의 정서, 태도 : 그리움, 걱정</p>	<p>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엘랑 집을 짓고 집 안엘랑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걸새      에 용거북 자물쇠로 깊이 깊이 잠갔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가      한 달이 서른 날이어나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p> <p style="text-align: right;">- 작자미상 '사설시조'</p> <p>V. 시적화자가 처한 상황 : 대상과 이별해있음</p> <p>V. 시적화자의 정서, 태도 : 그리움, 원망</p>
--	---

## 2. 시 읽기 패턴

### 1) 시 읽기 패턴 매뉴얼

구 분	시대적 배경 현대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성 패턴
순수성찰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도 상황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작품 : 화자의 성찰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함. (출제 빈도는 현저히 낮음)</li> </ul>
상황 중심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 또는 대상의 상황 파악이 중요한 작품 (주로 고독, 이별 또는 시대적 상황과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의 상황 → 화자의 정서와 태도</li> <li>- 대상의 상황 → 화자, 또는 시대상황과 연결 → 정서와 태도</li> <li>- 화자의 상황과 정서 → 주요 대상과 연결</li> </ul> </li> </ul>
정서 중심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끼고 있는 정서를 드러내는 데 주력 : 대상을 이용하는 경우 많음</li> </ul>
대상 중심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에 대한 순수한 관찰과 느낌</li> <li>○ 대상에 대한 관찰(속성) → 삶의 의미, 깨달음, 교훈 도출 : 대상이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경우도 존재함</li> <li>○ 대상에게 주는 가르침 → 화자의 생각을 대상에게 전달</li> </ul>

2) 작품으로 패턴 이해하기

[정서 중심 패턴] : 고은 '눈길'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大地)의 고백(告白).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寂寞)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상황중심 패턴] : 김광균 '광장'

비인 방에 호올로  
대낮에 체경(體鏡)을 대하여 앉다  
  
슬픈 도시엔 일몰이 오고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늘어선 고층 위에 서격이는 갈대밭  
열없는 표목(標木) 되어 조으는 가등(街燈)  
소리도 없이 모색(暮色)에 젖어  
  
얽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마음 한 구석에 벌레가 온다  
  
황혼을 쫓아 네거리에 달음질치다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다

[정서중심 패턴] : 김기림 '유리창'

여보

내 마음은 유리가 봐 겨울 한올처럼  
이처럼 작은 한숨에도 흐려 버리니……

만지면 무쇠같이 굳은 체하더니  
하로밤 찬 서리에도 금이 갔구료

눈포래 부는 날은 소리치고 우오  
밤이 물러간 뒤면 온 땀에 눈물이 어리오

타지 못하는 정열 박쥐들의 등대  
밤마다 날어가는 별들이 부러워 쳐다보며 밝히오

여보

내 마음은 유리가 봐  
달빛에도 이렇게 부서지니

[대상중심 패턴] : 송수권 '까치밥'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족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짚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 [2강] 현대시 기본개념 & 기출분석(1) (샘플)

### I. 현대시의 구성요소 핵심개념

#### 1. 화자, 청자, 대상 분석하기

##### 1) 시적화자 (다른 말로, '시적자아' , '서정적 자아' 등)

시적화자란,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 . 시인과 시적화자는 동일인물일까?
- . 시적 화자가 하는 일
  - 시적 상황을 묘사해준다.
  -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준다.
  -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깨달은 점 등 내면세계를 드러내 준다.

[중간점검] 완벽히 확인하자!

- . 다음 중 '종교적 깨달음' 이라는 주제를 가장 절실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화자는?  
(1) 목사 (2) 초딩 1학년 (3) 이종 격투기 선수

[화자 중심의 시, 대상 중심의 시란?]

화 자 : 상황 / 정서 / 태도

대 상 (인간 / 자연물-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할 것)

: 대상의 상황, 정서, 태도 -> 화자의 정서, 태도

[수능, 평가원 기출선지 집중분석]

-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2012학년도 9월 모평)
-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2010학년도 6월 모평)
-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2006학년도 수능)

[기출에 적용!]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쪽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옆뻐다가는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평야만 남겨 놓고 먼 산 속으로 간다. - 김광섭 '산' 中에서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 하종오 '동승' 中에서

[ '시' 본질에 대한 선지! 절대 고민하지 말자!]

- ~(이미지, 수사법, 대상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환기한다 / 심화한다.
- ~(이미지, 수사법, 대상 등)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 ~을 통해 시상을 유발한다.

2) 청자

청자가 있다 - 대화체, 대화적 어조, 말을 건네는 어투(방식)

청자가 없다 - 독백체, 독백적 어조

> 청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까?

: 반드시 외적 청자가 존재해야 한다.

[수능, 평가원 기출선지 집중분석]

- (나)의 '전혀여 쥬렴', (다)의 '건너 주게'를 보면 작품내에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2016학년도 6월 모평(B))
-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2013학년도 6월 모평)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2013학년도 6월 모평)
- 대화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2012학년도 9월 모평)
-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2009학년도 9월 모평)
-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2008학년도 수능)

[기출에 적용!]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중에서



3) 시적대상

**시적대상 : 화자자신, 타인, 사물 또는 자연**

- . 시적대상을 확인한 다음, 대상의 특성(속성)을 파악하자.
- . 시적대상을 수식하는 말, 시적대상을 서술하는 말에 주목!
- . 시적화자의 상황 뿐만 아니라, 시적대상이 처해있는 상황도 파악한다.

**[대상중심의 시, 분석방법]**

- . 주된 대상 파악 →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속성 파악 → 대상의 정서, 화자의 정서

**[수능 선지를 통해 정리하기!]**

- . 긍정적 대상
- . 부정적 대상

4) 객관적 상관물

: 화자의 감정, 느낌, 정서 등을 드러내는 데에 동원되는 구체적인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 화자와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 일치하는 경우 (감정이입)
  - > 대상에 감정을 의탁 (투영)
- 화자와 객관적 상관물의 상황이나 감정이 대비되는 경우
-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의 감정을 환기하는 경우 (=매개체)

**[수능, 평가원 기출선지 집중분석]**

-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016학년도 6월 모평(B))
- 감정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2012학년도 9월 모평)
-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2011학년도 수능)
-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2011학년도 수능)
-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2011학년도 수능)
- 화자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2010학년도 수능)
-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2008학년도 9월 모평)
-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2007학년도 6월 모평)

## 2. 상황, 정서, 태도

### 1) 시적 상황

**시적상황 = 시적 화자가 처해있는 분위기, 형편, 정황**

- . 내적 상황 : 시적화자가 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 . 외적 상황 : 시에 반영된 시대적 사회적 상황

**[애매한 개념(선지) 정리하기]**

- . 개인적 현실 / 사회적 현실(역사적 사건, 사회문제 → 반드시 직접 등장)
- . 긍정적 상황(긍정, 예찬, 연민.....)
- . 부정적 상황(결핍, 부재, 상실.....) - 이상과 현실의 괴리

### 2) 정서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시적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각종 감정, 기분, 생각 등을 총칭**

- . 긍정적 정서 : 기쁨, 희망, 소망, 동경, 사랑, 즐거움
- . 부정적 정서 : 슬픔, 절망, 한, 체념, 갈등, 외로움, 노여움, 안타까움, 비판
-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수능, 평가원 기출선지 집중분석]**

-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2016학년도 수능(B))
-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내세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2012학년도 수능)
-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인식을 드러낸다. (2010학년도 수능)
-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2006학년도 수능)

[애매한 수능 선지 정리하기!]

- 성찰 =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함  
→ 삶에 대한 부끄러움 / 후회 → 삶과 존재에 대한 깨달음  
(단순한 그리움이나 슬픔은? )
- 애상
- 감정의 절제 = 관조적 = 담담한 = 차분한 = 객관적 (정서의 간접제시란?)  
e.x) 그녀를 담은 하얀 서리가 밀려온다.
- 감정의 분출 = 격정적 = 영탄적 = 열정적 = 주관적 (정서의 직접제시란?)  
e.x)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난다.

[수능, 평가원 기출선지 집중분석]

-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모평(B))
-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13학년도 9월 모평)
-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2013학년도 9월 모평)
-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2012학년도 9월 모평)
-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011학년도 6월 모평)
- (나)는 (가)에 비하여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낸다. (2009학년도 6월 모평)
-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2009학년도 수능)
-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2009학년도 수능)
-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을 넣는다. (2006학년도 수능)

3) 태도

- 긍정적 태도, 긍정적 삶의 자세 / 부정적 태도, 부정적 인식
- 감탄·예찬적 태도 / 비판적 태도(대상에 대한 비판)
- 의지적 태도(현실극복 의지) / 초월적 태도
- 반성적 태도
- 냉소적 태도, 자조적 태도
- 관조적 태도
- 풍자적 태도 (대상에 대한 풍자)

[애매한 개념(선지) 정리하기]

- . 비 판 = 직접 까는 것만 비판인가?
- . 관조적
- . 냉소적 / 자조적

[수능, 평가원 기출선지 집중분석]

-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모평(B))
-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2011학년도 수능)
-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2008학년도 수능)
-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2007학년도 수능)
-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2008학년도 수능)

4) 정서와 태도의 연장선, 어조!

- 청자의 유무에 따라 : 독백조, 대화조
- 화자의 유형에 따라 : 남성적, 여성적 (부드럽고 섬세한 어조)
-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 : 권유, 명령, 기원, 예찬, 순응, 의문, 소망 등
- 화자의 감정상태에 따라 : 낙천적, 걱정적, 영탄적, 애상적, 관조적 등
-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 :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등
- 시어 : 시어의 의미, 이미지, 말소리가 주는 느낌
  - ㄴ, ㄹ, ㅁ, ㅇ : 울림소리 - 경쾌, 상쾌, 부드러움
  - ㅈ, ㅋ, ㅌ, ㅍ : 거센소리 - 강하고 거친 느낌, 딱딱한 느낌
  - ㅏ, ㅑ : 양성모음의 결합 - 밝으면서 작고 가벼운 느낌
  - ㅓ, ㅕ : 음성모음 - 어둡고 크고 무거운 느낌

[애매한 개념(선지) 정리하기]

- 의지적 어조
- 부드럽고 섬세한 어조
- 단호한 어조 또는 단정적 어조
- 공감적 어조
- 단호한 어조/단정적 어조의 배치되는 어조
  - 부드러운 어조
  - 추측 표현
  - 의문표현
  - 영탄표현
  - 생략표현
- 시적 긴장감

[수능, 평가원 기출선지 집중분석]

- ‘기다리리’, ‘츄게 하리’ 등의 서술어로 화자의 의지나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2014학년도 5월 예비시행)
- 정중한 어조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2013학년도 9월 모평)
- 명령적 어조로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
-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2012학년도 수능)
-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2010학년도 수능)
- 단정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2010학년도 6월 모평)
-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009학년도 수능)
-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2008학년도 수능)
-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2008학년도 9월 모평)
-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2007학년도 수능)

5) 거리의 개념

거리 : 두 개의 대상이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

▶ 물리적 거리 : 대상 간에 실제로 떨어져 있는 정도 (멀다, 가깝다)

(예) 나는 너와 10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어.

▶ 심리적 거리 :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 (두다 또는 두지 않는다)

(예) 나는 어제부터 너와 거리를 두고 있다.

- 가깝다 : 긍정적, 예찬, 친함

- 멀다 : 부정, 비판, 풍자, 냉소

▶ 거리감 : 거리에 대한 느낌

- 대상과의 거리감이 드러나 있다. :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거리가 떨어져 있음.

-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물리적인 거리에 대해 화자가 심리적으로 더 멀리 느끼고 있음.

○ 기출에 적용!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폭포(瀑布)는 곧은 절벽(絶壁)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規定)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向)하여 떨어진다는 의미(意味)도 없이

계절(季節)과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고매(高邁)한 정신(精神)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金盞花)도 인가(人家)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瀑布)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위 시를 읽고 아래에 답하십시오.

(1)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Yes ( ) / No ( )

(2)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의식이 드러난다. Yes ( ) / No ( )

(3) 지향해야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Yes ( ) / No ( )

(4)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Yes ( ) / No ( )

## [5강] 고전시가 패턴분석 (샘플)

### I. 고전시가의 패턴분석

#### 1. 작가층에 따른 주제 패턴

##### [시조의 작가층]

· 임금부터 양반, 부녀자, 기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층

- 작가=양반 : 유교 충의 사상, 효 사상, 자연

(양반이 썼는데, 임이 나온다면? )

- 작가=양반=아녀자 : 답답함, 친정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그리움 (허난설헌, 신사임당)

- 작가=기생 :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황진이(명월), 매창, 한우, 계랑, 흥랑 등)

- 작가=평민 : 탐관오리 비판, 삶에 대한 답답함 해소, 임에 대한 그리움

##### [자연 주제 세분화]

1) 자연 : 학문의 공간

2) 자연 : 노는 공간(풍류)

3) 자연과 속세



## 2. 자연의 주제 패턴

**자연** : 강호, 강산, 강천, 청산, 산수, 산천, 임천, 송간, 죽립, 청풍명월, 유수, 백구, 풍월 등

### ① 안빈낙도(安貧樂道) 계열

- 가난속에도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  
(소박한 차림 - 도롱이, 삿갓, 죽장 망혜 / 소박한 음식 - 박주 산채, 보리밥 풋나물)
- 띠집, 초려삼간, 나물, 소부허유

### ② 유유자적(悠悠自適) 계열

- 자연속에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는 태도

### ③ 자연동화(自然同化) / 자연친화(自然親和) 계열

-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지

### ④ 무릉도원(武陵桃源)

- 자연적 이상향

### ⑥ 탈속적 경지

-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거

### ⑦ 풍류적 태도 - 술, 음악 (거문고, 가야금)

### 3. 고전시가의 해석 패턴

#### 1) 모음의 변화

- ① 훈민정음 창제 당시 : • ㅡ ㅣ ㅏ ㅓ ㅗ (단모음 7개)
- ② 18세기 : ㅣ ㅡ ㅏ ㅓ ㅗ ㅓ ㅓ ㅓ (단모음 8개)
- ③ 현대국어 : ㅣ ㅡ ㅏ ㅓ ㅗ ㅓ ㅓ ㅓ ㅓ (단모음 10개)
  - ◆ • (아래아) 첫째음절 - 'ㅏ', 둘째음절이하 - 'ㅡ'
  - (예) ㅓ는, ㅓㅓ니 (가는, 같으니)
  - ◆ 한자어, 복합어 계열은 첫째 둘째 상관없이 모두 'ㅏ'로 읽음
  - (예) 무스(無事)ㅓ다, 첫ㅓ (무사하다, 첫ㅓ)
  - ◆ ㅓ ----- ㅓ ㅓ
  - (예) ㅓ발(白髮) 기ㅓㅓ(백발, 개ㅓ대)

#### 2) 자음 : 대부분 묵음 처리

- ㅓ-비음순경음
- ㅓ-반치음
- ㅇ-옛이음
- ㅇ-여린 히음

#### 3) 두음법칙 (현대국어로 오면서 확대)

- ① ㄹ → ㄴ ex) ㄹ을 ㄴ귀
- ② 구개음화 된 ㄴ (니, 녀, 녀, 뇨, 뉴, 네) : (이, 야, 여, 요, 유, 예)
  - (예) ㄴ름 ㄴ름 뇨강 ㄴ (이름, 여름, 요강, 옛)
- ③ 종자음 (서로 다른 자음이 겹침) : 맨 뒤 자음의 된소리
  - (예) ㅓ, ㅓ, ㅓㅓ다, ㅓㅓ, ㅓ (꽃, 뜯, ㅓㅓ다, ㅓㅓ는, ㅓ, ㅓ)

#### 4) 구개음화 (ㄷ, ㅌ + ㅣ = ㅈ, ㅊ → 단모음화)

- ㄷ ㄷ ㄷ ㄷ ㄷ ----- ㅈ ㅈ ㅈ ㅈ ㅈ
- ex) ㄷ다, ㄷ국, ㄷ다(ㄷ다, ㄷ국, ㄷ다)
- ㅌ ㅌ ㅌ ㅌ ㅌ ----- ㅊ ㅊ ㅊ ㅊ ㅊ
- ex) ㅌ악, ㅌ턴, ㅌ세(ㅌ악, ㅌ천, ㅌ세)

5) 원순 모음화, 전설모음화

ㅁ 브 프 뽀 → 무 부 푸 뽀  
 (예) 물·블·플(물, 불, 풀) (예) 브터 · 북관당(부처, 북관정)  
 (예) 블 붙는듯 흐도다(불 붙는듯 하도다)  
 ㅅ, ㅈ, ㅊ + ㅡ > ㅣ  
 (예) 즌 뒤, 즌 흠, 아츰, 즌생, 오즉(진 데, 진흠, 아침, 짐승, 오직)

6) 종성법 읽을 때 소리는 고전이나 현대국어나 유사

- ① 훈민정음 창제 당시 -- 종성부용초성
- ② 16세기 -- 8종성가족용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 ③ 18세기 -- 7종성가족용 (ㄱ, ㄴ, ㄹ, ㅁ, ㅂ, ㅅ, ㅇ)
- ④ 현대국어 -- 종성부용초성 (두음법칙으로 종성의 확대)

7) 표기원칙

고전 -- 이어적기 (연철) - 읽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예) ㅅ스미, 오리도(사슴이, 올이도)  
 현대 -- 끊어적기 (분철) - 원래 모양을 살려 적기

8) 의문형 종결어미

- ① 의문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 ~가
- ② 일반의문문(의문사가 없음) → ~고
- ③ 2인칭 대화체 (의문사에 상관없이) → ~ㄴ/는다  
 (예) ㅅ고흥망을 아는다 몰으는다.(아는가, 모르는가)

9) 한자어의 이중모음은 대부분 단모음화

(예) ㅅ제는 적실하고, 상상두(ㅅ제는 적실하고, 상상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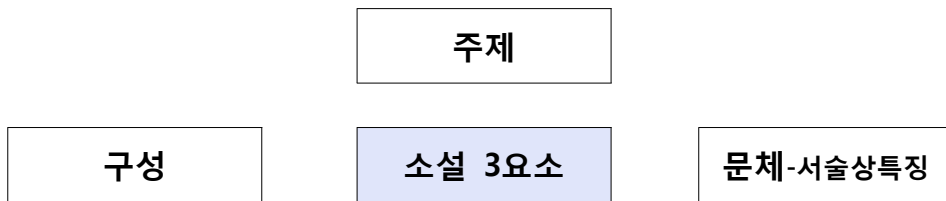
10) 한자어 읽기

대부분 한자어는 전체 상황이나 정서 태도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고유명사가 많으므로 끝자를 통해 미루어 짐작하면 되지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해석인 경우 주석으로 달아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예) ~정(정자이름), ~암(바위이름) 등 등

# [8강] 현대소설 패턴 분석 (샘플)

## I. 현대소설 패턴분석

### 1. 소설의 3요소



※ 소설 구성의 3요소는? ( )

> 소설의 개념

- 1) 삶을 2) 이야기로 3) 꾸며서 4) 쓴 문학

### 2. 소설 읽기 패턴

#### 첫째, 인물 파악!!

- 일단, 등장하는 인물에 밑줄~ 긍정적 인물인지, 부정적인물인지도 구분
- 인물의 유형, 인물 제시 방법도 파악해야겠지?

#### 둘째, 등장한 인물들의 갈등구조 파악 ▶ 이것이 바로, 사건! 그리고, 줄거리! (주제)

- 내적 갈등 vs 외적갈등

#### 셋째, 시점 파악

- 소설에서 서술자의 시점이 무엇 무엇이지?

#### 넷째, 구성, 서술상 특징, 소재의 기능파악

- 시에서의 '표현상의 특징' 파악과 유사하지?

**Tip) 앞부분의 줄거리 또는 중간 부분의 줄거리가 나와 있다면, 완벽하게 정독하자.**

- 줄거리에 인물이 등장한다? → 알아야 풀 수 있다.
- 대략적인 줄거리 파악이 되어야 지문의 소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 3. 시대적배경을 활용한 <보기>잡기 패턴

[시대적배경에 따른 소설의 주제패턴]

- 개화기 / 일제강점기
  - 신교육 사상, 계몽 운동, 개화 의식 고취 □  
예) 이광수 <무정>, 심훈 <상록수>
  - 일제 강점기 : 민족의 수난과 고통, 항일 정신 □ □  
예) 현진건 <고향>, 염상섭 <만세전>
- 8·15 광복
  - 해방 이후의 혼란한 사회의 모습 □ □  
예) 채만식 <논 이야기>
- 6·25 전쟁
  - 이념의 갈등, 전쟁의 참혹함 □ □  
예) 오상원 <유예>, 손창섭 <비 오는 날>
- 산업화 시대
  - 인간 소외,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 □ □  
예)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현대사회
  - 다문화 □ □  
예) 박범신 <나마스테>

**문학작품에서 절대 100% 공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 [9강] 현대소설의 기본개념 및 기출분석(1) (샘플)

### I. 현대소설의 기본개념(1)

#### 1.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 1) 말하기 (직접 제시) : 분석적, 요약적, 설명적, 편집자적 논평

제시 방법	말하기(telling), 분석적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판단, 분석하여 제시하며 때로는 인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평함.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며 이야기 전개 속도감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임
-------	----------------------	--

- 직접 제시의 예를 살펴보자.

#### 전상국, 「우상의 눈물」

형우는 반장이 될 만한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무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하고 생각한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결단력도 대단했다.

학교 당국의 지시에는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다가도 어떤 결점이 보일 때는 무섭게 반격을 가하는 용기도 갖추고 있었다. 한 마디로 그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중략>

우리가 볼 때 기표는 구제불능이었다.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기보다 선천적인 어떤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냉혈 동물처럼 피가 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뱀처럼 작고 징그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활한 자들이 가끔 보이는 그런 거짓 착함마저도 나타나 보일 줄 몰랐다. 철저하게 악할 뿐이었다. 평생을 두고 사랑이라는 낱말로 미화될 수 있는 행동거지를 해 보일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그런 포악성 때문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표정은 항상 독기를 음울하게 깔려 있어 맞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 직접 제시의 장점

-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명백하게 설명해 준다.
-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건을 빠르게 전개시킬 수 있다.

- 직접 제시의 단점

- 직접 설명하다보면 추상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
- 서술자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므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여,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 사용되는 시점

-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활용된다.

#### > 요약적 제시

서술을 통한 인물 상황 압축 제시, 시간의 흐름 압축 서술 → 사건전개 속도 빠름.

2) 보여 주기(간접 제시) : 극적, 묘사적, 보여주기

제시 방법	보여주기(showing), 극적	서술자가 나서지 않고 행동과 대화 또는 장면 묘사,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함. 소설의 극적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
-------	-------------------	---

- 간접 제시의 예를 살펴보자.

염상섭, 「삼대」

“너 어째 왔니? 오늘은 예배당에 안 가는 날이냐?”

영감은 얼굴이 발끈 취해 올라오며, 윗목에 숙이고 섰는 아들을 쏘아본다.

“어서 가거라! 여기는 너 올 데가 아니야! 이 자식아, 나이 오십 줄에 든 놈이 젊은것들을 앞에 놓고 철딱서니 없이 무엇이 어째고 어째? 조상을 꾸어 왔어? 꾸어 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만 도와? 배지 못한 자식……!”

“아버님께서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그 외 지금 조선어 사전 편찬하는 데…….”

상훈이는 조심도 하려니와 기를 녹이어서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뜻이 말을 이어 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네게 그 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하여간에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별안간 치산이란 당한 일입니까. 치산만 한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서원을 짓고 유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렵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어기를 높여서 반대를 하였다.

- 간접 제시의 장점

-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

- 간접 제시의 단점

- 서술자의 견해를 나타내기가 불편해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 사건 전개 속도가 느려, 독자가 생략과 압축의 묘미를 느끼기 어렵다.
- 독자들이 작가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 사용되는 시점

- 주로 관찰자 시점에서 활용된다.

> 장면 제시

대화나 묘사를 통해 상황을 제시 → 사건전개 속도 느림.

## 2. 인물의 성격제시 방법 기출선지 분석

.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 ) 제시
-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 ) 제시

.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 제시

. 200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 ) 제시

### [수능, 평가원 기출선지 집중분석]

-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모평(b))
- 인물의 외양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2014학년도 예비)
-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2014학년도 예비)
-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2013학년도 9월 모평)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013학년도 9월 모평)
-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2013학년도 6월 모평)
-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
-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2012학년도 수능)
-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2011학년도 수능)
- 외양을 묘사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2011학년도 수능)
- 객관적 묘사를 활용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2010학년도 수능)
-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2007학년도 수능)



## [11강] 고전소설의 패턴 분석 (샘플)

### I. 고전소설의 패턴분석

#### 1. 고전소설의 5가지 주제 패턴

- > 애정소설 :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함. 의외로 자유연애 사상을 담고 있는 작품 다수.
- > 가정소설 : 축첩제도로 인한 처첩 갈등, 적자-서자간의 차별
- > 풍자소설 : 비판, 교훈
- > 우화소설 : 동식물을 의인화 (풍자)
- > 영웅군담소설 : 구조를 기억해야 함.

#### [주제별 읽기 요령]

##### 예) 애정소설의 패턴

애정소설 : 자유연애 → 결연 장애 (원인분석) → 대부분 해피엔딩

##### [결연 장애의 유형]

- 신분차
- 가부장으로 인한 결연 장애
  - \* 아버지가 정해놓은 정혼자 - 부정적 인물인 경우 많음.
  - \* 이 경우, 이항대립으로 인물 구도 정리
- 천재지변, 죽음, 전쟁  
(후략)

##### \* 패턴을 이용하여 쉽게 읽기

- 자유연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 결연장애를 찾자.
- 결연장애 유형을 파악해보자.  
→ 지문의 흐름을 잡고 읽을 수 있다. (보다 쉽게...)

# [12강] 고전소설의 기본개념 & 기출분석 (샘플)

## I. 고전소설의 핵심 특징

### 1. 서술자의 개입 ≙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자신의 생각, 느낌을 서술하는 것.

1. 판소리 문체일 때
2.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설의적 의문형

예를 들어 달 같은 마패(馬牌)를 햇빛같이 번듯 들어

"암행 어사 출도(出道)야!

외치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눕는 듯. 초목 금순(草木禽獸, 山川草木)들 아니 떨랴.

- 작자 미상, '춘향전' -

⇒ 서술자의 개입이란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가능함.

⇒ 극강의 문제라면, '서술자의 개입' 과 '편집자적 논평' 을 구분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다.

#### > 서술자의 개입

: 서술자가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

(1) 인물의 내면 / 심리 분석 및 직접적 제시

(2) 서술자 논평(편집자적 논평) -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

(3) 사건 전개에 개입 :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가?

(4) 직접 독자에게 말을 거는 투 / 설의법에 주목.

### ※ 다음에서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을 찾아보자.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마침내 한림은 화를 벌컥 냈다.

"투부\*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를 생각하여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현에서 더러운 행실을 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을 때에도 죄를 묻지 않았어.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악한 짓을 하다니…….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흥향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2. 현실과 비현실의 교차

전기적(傳奇的)(傳전할 전,出奇이할 기) :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 진기한 것.  
일상적 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허구적으로 짜 놓은 것.

Tip) 헛갈리지 말자~!

전기(傳전할 전, 記기록할 기) :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

(후략)

# [14강] 독서 출제경향 이해, 독해연습의 패턴원리(샘플)

## I. 독서 출제경향 이해

### [기존 통합수능과의 비교]

2013 수능 비문학	2016 A형 비문학	2016 B형 비문학
과학	돌림힘	중력,부력,항력
기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생략
인문	귀납	도덕적 운
사회	기판력	지식경영(암묵지) / 기판력
예술	생략	생략
언어	[출제되지 않음]	

- 2016 수능 : 4개 지문, 예술지문이 출제되지 않아 독해시간을 많이 소요
- 여전히 변별력 확보의 key를 쥐고 있음.
- 추론, 세부내용일치 등 지문내용에 대한 꼼꼼한 이해와 글의 구조파악이 필요한 문항들의 비중이 높아짐.

### [비문학(독서)Part의 기본적 성격]

- 비문학의 형식 : 문학을 제외한 글 →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글
  - 설명문 : 객관적 정보전달
  - 논설문 : 주관적 의견전달
- 비문학의 내용(출제분야)
  -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독서

**[비문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비문학 →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파트

- 지문 내용의 생소함과 거부감
- 지문 길이에 대한 부담
- 지문 이해의 어려움

○ 반드시 다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 이해하면 좋다. 그러나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 분야별, 기본적인 개념어휘는 지속적으로 학습하자.

○ 비문학 지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지문의 구조분석이 중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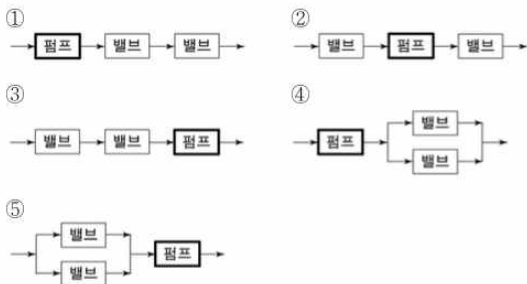
○ 비문학의 원리 - '압도적인 오답률을 기록한 기출 문제' 에서 살펴보자.

49. [가]에 근거할 때, <보기>의 배수펌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구조는?

<보 기>

하천 인근의 배수펌프 관에는 두 개의 역류 방지용 밸브가 연결되어 있다.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금방 빠지지 않을 경우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두 개의 밸브는 '중복 설계'된 것이므로 한 개만 작동해도 역류를 막을 수 있다.

\* 단, 역류에 대한 고장만을 생각하고 밸브가 닫힌 채 고장 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음. (→: 물이 흘러 나가는 방향)



[가] 종종 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설계(重複設計)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령, 순간적인 과전류로부터 섬세한 전자 기구를 보호하는 회로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 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개를 물리적 구조상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차단기 2개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전자 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직렬 구조이지만 신뢰도 구조상으로 병렬 구조인 것이다.

○ 비문학 문제풀이 → 퍼즐 맞추기를 연상해라.



퍼즐판	퍼즐조각을 넣는 공간	퍼즐조각
지문	발문	선지

### [비문학의 지문과 문항의 구성]

- 1,000~1,400자 / 4~6단락 / 지문별 3~5문항
- '필자의 의도' , '화제 파악' , '전반적인 글의 흐름' 파악이 선결과제
- 세 가지 구성요소의 특징
  - 발문 : 6가지 발문유형에 따라 접근 (출제자의 요구-분석력)
  - 선지 : 발문의 요구사항에 맞게 선택 (판단력)
  - 지문 : 논지전개, 구성 등 큰 그림을 바탕으로 꼼꼼히 읽는 훈련 필요 (독해력)
- 객관식 시험의 한계 → 반드시 답을 선택하는 '근거' 를 찾아라!

### [비문학 어려움의 유형]

- (유형1) 특정 지문에서, 아예 지문의 내용 접근이 안된다.
  - 지문 전체 구조 파악훈련, 특정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어휘력 증진
  - 단락별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
- (유형2) 2개 선지 중 고민하면 거의 틀린다. / 선지가 다 맞는 것 같다.
  - 정확한 발문파악, 모든 선지의 근거 찾기(추론) 연습
  - 오답정리時 해설을 보기 전 치열하게 고민하는 훈련
- (유형3) 절대적 시간부족
  - 독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치열한 독해연습 필요
  - 지문 전체 구조 파악훈련

**[비문학의 핵심화제(글의 제재)]**

**1. 논설문의 주제**

: 글쓴이의 주장 → 글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

**2. 설명문의 주제**

: 화제, 대상에 대한 설명 → 글의 중간 부분에 위치

**3. 화제와 주제(중심내용)의 위치**

구분	논설문	설명문
화제	첫 1~2단락	
주제(중심내용)	결론(글의 마지막 부분)	본문(글의 중간 부분)

**[지문독해(내용파악)의 요령 소개]**

**1. 무작정 돌진 유형**

**2. '단락별 관계 파악/전반적 내용파악 → 세부독해' 유형**

: 첫 단락, 각 지문의 첫문장/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락 독해

**3. '도식화된 <보기> 및 <선지> 파악 → 세부독해' 유형**

**4. '초도 독해 → 세부 독해' 유형**



## II. 독해 연습의 패턴

[Step1 : 지문의 구조파악]

[Step2 : 지문 세부독해]

[Step1 : 발문의 파악]

[Step1 : 선지분석 및 정답찾기]

## III. 오답정리 패턴

[Step1 : 지문의 구조파악을 올바르게 했는가?]

[Step2 : 틀린 문제 다시 풀기]

- 최초 채점할 때, 절대로 정답을 표시하지 않고, 다시 풀어본다.

[Step3 : 모든 선지의 근거 찾기 → 맞은 문제의 지우지 못한 선지 포함]

- 2번에 걸쳐 문제를 풀 때, O/X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모든 선지의 근거를 찾는다.
- 내용일치, 논리적 추론 등 선지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한다.

[Step4 : 해설지 확인]

- 본인이 찾은 선지의 근거가 맞았는지, 해설지로 점검한다.

[Step5 : 질문] : 끝까지 근거를 찾지 못한 지문

# [15강] 독해연습의 패턴(1) - 지문의 구조파악 (샘플)

## [지문의 구조파악을 통한 독해의 방향잡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B 17~20]

<p>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 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 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p>	<p>[1단락]</p>
<p>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 이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p>	<p>[2단락]</p>
<p>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p>	<p>[3단락]</p>
<p>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 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p>	<p>[4단락]</p>
<p>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p>	<p>[5단락]</p>
<p>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 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p>	<p>[6단락]</p>

# [16강] 독해연습의 패턴(4)- 선지의 근거찾기(추론) 방법 (샘플)

## [모든 선지의 근거찾기 (내용일치, 추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B 25~28]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 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 과 '조건' 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 이라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 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पर्는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 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 [18강] 독해연습의 패턴(4)-지문의 주제별 패턴분석 (샘플)

## [비문학 지문의 특성]

- 군대 : 이등병이 힘든 이유는?
- '지문의 특성(원리)을 이해하고 읽는 것' 이 중요

## [비문학 지문의 형식]

### 1. 논설문과 설명문

논설문	설명문
문제제기/논점제기	대상, 화제 제시
↓	↓
논거 제시 / 두 가지 관점 소개	대상, 화제에 대한 설명
↓	↓
주장 / 자신의 관점(의견, 견해) 제시	정리(요약), 가치, 의의, 전망 제시

### 2. 2015대수능 지문을 통해 살펴본 논설문과 설명문의 차이

논설문의 예시 - 수능국어A(23~26번 지문)	설명문의 예시 - 수능국어A(21~24번 지문)
<p>[공공서비스-민간위탁제도의 특성] (전략)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u>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u> (의견 표출)</p>	<p>[시민사회론] (전략)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p>

**[비문학 지문의 내용]**

**1. 인문지문 : 2개 이상의 이론 공통점 / 차이점 도출, 1개 이론에 대한 세부설명**

내용	분야
가치관, 사상, 문화	철학, 역사, 윤리, 종교

**- 2015 대수능에 출제된 인문지문**

**[국어A(자연계)]**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후략)

**[국어B(인문계)]**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후략)

2. 사회분야 지문 : 사회이론 소개, 시대적 특징과의 결합, 한계와 대안 제시

내용	분야
사회적 이론, 사회적 문제	정치, 경제, 법, 시사, 광고

- 2015 대수능에 출제된 사회지문

**[국어A(자연계)]**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한다. (후략)

**[국어B(인문계)]**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후략)

3. 과학분야 지문 : 과학이론의 원리, 과정이 핵심

내용	분야
과학적 지식체계, 과학적 사고와 실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2015 대수능에 출제된 과학지문

**[국어A(자연계)]**

우리 몸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 체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된다. 단백질 분해는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끊어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 및 포도당을 보충할 수 있다.

단백질 분해 과정의 하나인,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한 단백질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된 아미노산의 약 75 %는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이용되며, 나머지 아미노산은 분해된다.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尿素)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그리고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은 에너지나 포도당이 부족할 때는 이들을 생성하는 데 이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산으로 합성되거나 체외로 배출된다. (후략)

**[국어B(인문계)]**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 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궤도를 돌고 있다. 이 궤도의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 이라 한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 - 지구 - 달' 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후략)

4. 기술분야 지문 : 기술의 원리와 작동방식

내용	분야
분야별 기술의 원리와 실제	분야별 기술의 원리, 배경, 적용, 전망

- 2015 대수능에 출제된 기술지문

[국어A(자연계)]

디지털 영상은 2차원 평면에 격자 모양으로 화소를 배열하고 각 화소의 밝기인 화소값을 데이터로 저장한 것이다. 화소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일 때 검은색으로 가장 어둡고 255일 때 흰색으로 가장 밝다.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를 명암 대비라 하며 명암 대비가 강할수록 영상은 선명하게 보인다. 해상도란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를 말하며 '가로 × 세로' 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가로  $n$ 개의 화소를 가진 입력 영상을 모니터에 나타내면, 모니터에 있는  $n \times n$ 개의 화소에 입력 영상의 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된다. 하지만 모니터에 입력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나타낼 때는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에서 영상이 표시될 영역의 화소와 일대일 대응하는 '가상 영상' 을 만들고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가상 영상의 화소값을 모두 채운 다음 가상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두 배씩 확대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가로  $2n$ 개의 가상 영상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화소값을 채운다. <그림>처럼 입력 영상의 화소 A의 값을 가상 영상의 A0 ~ A3의 4개 화소에 그대로 복사한다. 나머지 화소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입력 영상을 확대한 가상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확대 복사 방법' 은 간단하지만 A0 ~ A3 모두가 같은 밝기로 표시되므로 윤곽선 부분의 격자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는 '모자이크 효과' 가 발생한다. 확대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한 방법이 '선형 보간법' 이다. 이는 입력 영상의 화소 가운데 A ~ D는 각각 A0, B0, C0, D0 위치에만 복사하고 나머지 화소들은 인접한 화소들을 이용하여 화소값을 채우는 방법이다. <그림>에서 A3의 화소값을 A3과 인접한 A0, B0, C0, D0의 평균값으로 채우고, A1은 A0과 B0의 평균값으로, A2는 A0과 C0의 평균값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빈 화소의 값이 인접 화소의 평균값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인접 화소들 사이의 명암 대비가 약해져서 모자이크 효과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화소값을 구하기 위해 평균값을 계산해야 하므로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후략)



5. 예술 지문과 독서지문

예술지문	독서지문
예술론, 예술관, 비평, 작품해설, 악기의 원리, 건축물의 구조	독서전략, 독서법

[예술지문 : 2015 EBS]

가야금은 거문고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악기이다. 가야금은 '가야'의 '금(琴)', 즉 '가야의 현악기'라는 뜻으로, 삼국 시대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만든 울림통에 명주실로 된 12현을 얹어 만든 치터(zither)\* 계통의 악기로 가야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양이두(羊耳頭)가 있는 것이다. 같은 치터 계통의 악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문고나 중국의 쟁이나 일본의 고토에는 양이두가 없으나 유독 가야금에만 양이두가 있다. 양이두는 가야금 아래 끝에 열두 개의 구멍을 뚫고 부들을 잡아매는 곳으로 양의 귀처럼 양쪽으로 비죽 나와 있다.

가야금의 구조를 살펴보면 오른손을 얹어 놓고 연주하는 좌단과 현을 받치고 있는 안쪽, 12개의 홈이 파여 이곳을 따라 현이 놓이는 현침, 현침 뒤쪽으로 나온 현을 매어 고정하는 돌괘, 12현을 묶어 현을 고정하는 부들, 소리를 널리 울려 퍼지게 하는 울림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료를 살펴보면 6세기 이후 가야금은 크기와 형체 면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전승되어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인 19세기 말에 들어와서는 '산조'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등장하면서 보다 다양한 기교와 빠른 한배\*를 가지고 있는 산조의 특성에 맞추어 악기의 크기를 조금 줄인 새로운 가야금이 등장하게 되었다.(후략)

○ [참고] 수요-공급곡선에 대한 이해

